

한동작 한동작 따라하다보면...몸치도 댄서 될수 있어요

광주문화재단 '1020 문화주간' 일일 클래스 체험기

10~20대 청소년 참가자, 뉴진스 'Super shy' 맞춰 안무 함께 배워
23~24일 BTS 정국 'Seven' 진행... '스트릿 댄스' 배울 수 있는 기회

"I'm super shy, super shy~"
취재진이 처음 취본 super shy는 스트릿댄스 중 한 장르인 '왁킹(Waacking)'이 추가 되는 춤이었다. 팔다리의 빠른 움직임이 돋보이는 왁킹은 70~80년대 생겨난 스트릿댄스의 하위 장르로 디스코 펑크류 음악에 어울리는 화려한 동작이 특징이다.

오래였던 기자에게 왁킹 댄스를 기반으로 한 안무들은 쉽지 않았다. 주변 청소년들의 날렵한 몸짓에 낙심하기도 했다.

다행히 구분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정도 흐름은 따라갈 수 있었다. 아주 능숙하지 않은 참가자도 있었는데 이들을 보며 내심 용기를 냈다. 수업에 참가하기 전까지 뉴진스 'super shy' 안무 중 트레이드마크인 일명 '파닥파닥 춤'을 유튜브에서 몇 번 접해본 정도가 전부였지만, 힘을 내 연습하다 보니 비슷하게나마 '허우적' 떨 수 있었다.

참가 계기를 묻는 질문에 한 참가자는 "원래 춤에 관심이 있어 집에서 영상을 보며 따라 추곤 했다"며 "요즘 유행하는 뉴진스 안무를 스튜디오에서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신청했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고비는 안무 중반부에 왔다. 연습했던 것보다 두 배는 빠른 리듬에 맞춰 구분 동작들을 연결해야 했는데 쉽지 않았다. 팔다리를 계속 흔들

고 앞뒤로 스텝이 꼬이기도 하면서 중심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중음악과 방송댄스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들이라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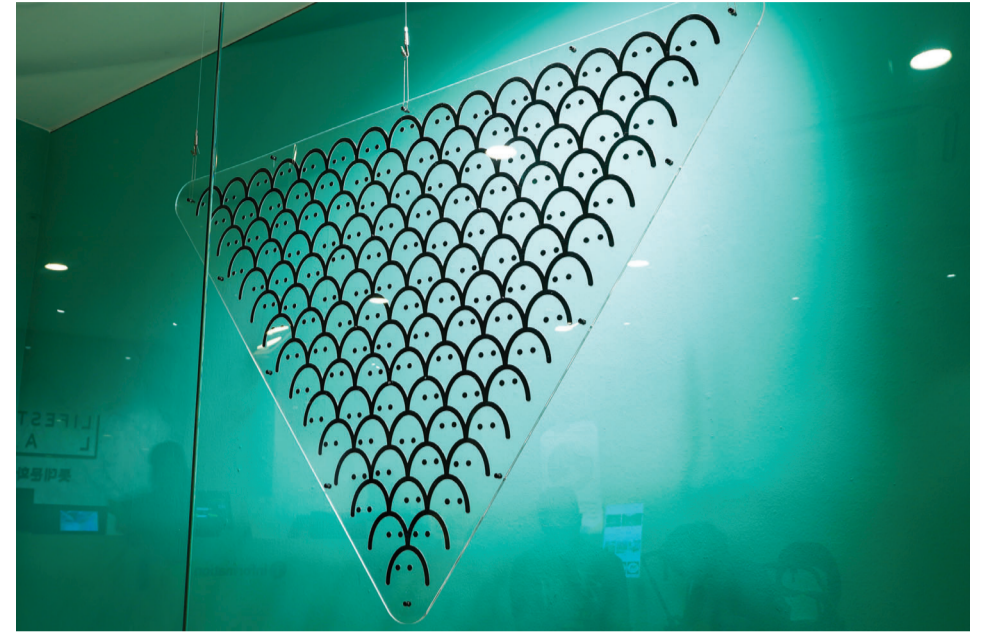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안무를 따라 몸을 움직이는 사이,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종 안무 시연에서는 뉴진스 멤버 '민지'가 된 것처럼 포즈를 취했다. 각자 동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날 레슨 영상촬영 및 소장도 가능했다.

이번 수업은 K-POP이 전세계 음악 팬을 사로잡을 만큼 인기를 끌면서 '스트릿 댄스'를 배우려는 예비 안무가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단 2023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의 일환인 '1020 문화주간'으로 진행됐다. 향후 강연은 MNET '스트릿댄스'에 참가해 화제를 모았던 댄스팀 엠비셔스의 연습실 '무빈업스튜디오'에서 펼쳐진다. 다음 일일 클래스 곡명은 BTS 정국의 'Seven'이며 오는 23~24일 예정.

무빈업스튜디오 대표 오정은 "댄스를 배우려는 참가자들의 땀방울과 열기가 느껴지는 시간이었다"며 "자신을 믿고 반복해서 연습에 몰입하다 보면 춤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역삼각형’

연결사회가 주는 유쾌함과 불안함

이조흠 '인터-페이스'전, 10월 29일까지 롯데갤러리

오늘의 사회를 연결사회라고 한다. 모바일을 매개로 한 소셜미디어는 점차 '연결'에 대한 피로감을 증폭시킨다. 소통이 활성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외로움, 고립감을 느끼는 이들은 늘고 있다. 관계망 이면에 드러워진 사회적 존재와 개인적 존재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조흠 작가는 그동안 익숙한 캐릭터들과 패턴 등을 모티브로 현대인의 삶과 정체성을 묻는 작품을 표현해왔다. 작가는 유년기의 표상인 만화 캐릭터들을 매개로 향수는 물론 사회 시스템에 매몰된 현대인들의 불안 문제를 제시한다.

이조흠 작가의 개인전 '인터-페이스'이 롯데갤러리에서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린다. 작품은 개인의 고단함과 사회 시스템 안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좌절, 존재의 의미를 탐색한다.

이 작가는 "특별함과 평범함, 이 두가지 가치를 두고 스스로 돌아본다. 그림, 집단, 카테고리를 통해 내가 어디쯤 있는지 파악해본다"며 "자세히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너무나 닮아 있다"고 말한다.

작품 '역삼각형'은 역삼각형에, 타원형으로 표상화 된 우리들의 모습을 담았다. 유쾌하면서도 발랄한 모습은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평범함 속에 드

리워진, 획일적인 연결과 단조로운 선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회관계망에 드러워진 견고한 '사슬'이다.

작품은 궁극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행복한가?'라고. 얼핏 불행하고 부정적으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작가의 의도는 마냥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여기에 반전이 있다. 작품이 함의하는 의미와 표현 방식, 환기하는 어법은 발랄하면서도 유쾌하기 때문이다. 절묘한 조화와 균형이 바로 이 작가 작품이 주는 미덕이다.

전시를 기획한 이은하 콜렉티브오피스 대표는 "이 작가의 작품은 비판 정신과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지만 결코 유쾌함과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데 특징이 있다"며 "우리들 사이의 투명한 선과 경계는 한편으로는 상호교류라는 시너지를 함의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한편 이조흠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했으며 스페이스 9의 'circle of life' 전, 10년 후 그라운드 3의 '3x3=8' 전 등 개인전, ACC의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북경 BSC 레지던시 등 다수의 레지던시 초청작가로도 활동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트릿댄스 레슨에 참여한 기자(왼쪽)와 수강생들이 뉴진스 'Super Shy'에 맞춰 춤을 배우고 있다.

'임방울 국악제' 대통령상에 소리꾼 박자희 씨

명창부 최우수상 김다정 씨
농악 대상 부안 군립농악단

광주 최고의 국악 절정을 가리는 제31회 '임방울 국악제'에서 대통령상(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로 박자희(39·사진)씨가 결정됐다.

박 씨는 지난 18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흥보가 중 '두손 합장' 대목을 불러 대통령 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상금은 4000만원.

'두손 합장' 대목은 흥보가 형님에게 애걸복걸하며 사정을 토로하는 애절한 가사말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전주 출신 소리꾼 박 씨는 2010년 공연 '춘향 2010'으로 데뷔했다. 제13회 영광 법성포 단오제

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종합대상과 제10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장원, 제4회 전국 학생 판소리 경연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박 씨는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믿고 들을 수 있는 소리꾼이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오랜 시간 음악예인의 길을 지지하고 지켜 준 부모님,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창부 최우수상에는 김다정(41) 씨, 농악 대상에 부안 군립농악단이 각각 선정됐다.

올해 임방울국악제는 판소리, 기악, 무용 등 학생부와 판소리, 기악, 무용, 시조, 가야금, 병창, 농악, 퓨전 판소리 부문에서 진행되는 일반부, 판소리 명창부 등에 354개 팀이 참가했다. 총 수상자는 72인이 결정됐으며 시상금 합계는 1억



1904년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에서 태어나 단가 '호남가'와 '쑥대머리'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소리꾼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8000여 만원에 달한다.

한편 임방울국악제는 일제강점기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국악인 임방울을 추앙하고 소리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국창' 임방울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젊은 실버의 집'.

공간 속의 공간 '젊은 실버의 집'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본전시장 2관 이색 작품 눈길

디자인은 삶을 바꾼다. 일상 생활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이 또한 디자인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세대를 위한 디자인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는 본전시장 2관에 들어서면 '젊은 실버의 집(Home for Neo Silver)'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간 속의 공간'을 상징한 컨셉으로 거실과 주방, 침실 등의 구분이 없이 사용자가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개방성에 초점을 맞췄다.

작품은 국민대 라이프스타일가구 디자인랩과 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가 전문가와 함께 산-학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사용자의 연령층, 동선 등을 고려해 평범한 주거 공간을 '실버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으로 전남지역 푸른 미래재단과 협력해 노년층과 보호자 등 사용자 대상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네오 실버(Neo Silver) 세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신개념 생활공간 디자인에 적

용한 것. 네오 실버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소비에도 적극적인 신세대 장·노년층을 일컫는다.

이번 작품에서 특히 '싱 소파'는 휴식, 엔터,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고려했다. 소파를 움직이면 소파가 나와 차를 마실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땐 내부로 밀어넣어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고안했다.

전시를 기획한 국민대 최경란 교수(동양문화디자인연구소장)는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생활공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상향을 반영했다"면서 "개발된 결과물들이 가치를 인정받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초대 전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1월7일까지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소년 협연의 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1일, 광주예술의전당

청소년 연주자들이 전문 연주자들과 협연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박승희)이 제135회 정기연주회 '청소년 협연의 밤'을 오는 21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먼저 관현악 합주곡 '아리랑 랩소디'를 감상할 수 있다. 영화음악 감독 이시수가 민요 '아리랑'을 바탕으로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위해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또 가야금 협주곡 '천기파랑'은 10구제 향가 '천기파랑'을 모티브로 창작한 작품인데 화랑 '기파랑'의 기개를 찬미하는 곡이다.

'소나무'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1984년 만들어진 동명의 원곡을 25현 가야금에 맞게 편곡해 선보이며 가야금 연주에 김효빈(서울대), 엄지영(경북대), 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 장면.

(광주일보 DB)

야금 병창에 정아령(전남대). 이성재(추계예대)의 대금 협주곡 '대바람 소리'와 가야금병창 협주곡 '제비노정기', 동문인 정가영의 생활 협주곡 '풍향'도 울려 퍼진다. 이외에도 기승전결이 분명하면서 고난도 수법을 곁들인 화려한 곡으로 평가받는 아쟁 협주곡 '김일규목 아쟁산조'는 김

나후(전남대)가 들려준다. 해금 협주곡 '활의 노래'도 레퍼토리에 있다. 관현악과 독주해금의 주법을 조화시킨 작품으로 주새봄(경북대)이 연주한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